

국가예산 확보 역대 최대

임실, 내년도 전년비 두배 국비331억, 특회계376억원

임실군이 중대형 국가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 가장 많은 예산을 따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중대형사업이 중점 선정되면서 24개사업 국비 331억원(총사업비 650억원)이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32개 사업 국비 144억원(총사업비 256억원)을 두 배 이상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올해 확보한 주요사업을 보면 작년부터 준비에 들어가 연초부터 산림청 소관 '임실N+를 천지 조성(20억원)'을 시작으로, 6차산업 직거래 활성화 장터 조성(16.4억원), 임실치즈마을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97억원), 인구

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20억원), 오수공공동물장묘시설 지원사업(50억원) 등이다.

이어 청년창업농 경영실습농장 조성(19.5억원), 기초생활거점 육성(관촌면 40억원, 성수면 40억원), 일반농산어촌개발(두월마을 5억원, 신전마을 10억원), 임실지구 중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300억원) 등도 선정됨으로써 역대 최대 성과를 이뤘다.

2019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군특회계 예산사업으로 신규 및 계속사업을 포함해 376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지난 해 340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사업별로는 신규사업으로 성수산 휴양림 보완(40억원)과 성수산 국민여가 캠프장 조성(21억원), 서이치천 하천재해예방사업(91억원), 평지천 생태하천복원사업(50억원), 임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35억원), 임실군 노후상수관망 개량사업(308억원) 등 각각 확정됐다.

일반국고지원사업으로는 오촌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65억원), 압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40억원) 등 신규사업이 반영되어 2019년도 1,000억원 국가예산 확보가 사실상 가능할 전망이다.

이같은 성과는 임실군이 국가예산 확보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탐장 과실과장은 물론 심 민 군수가 서울과 세종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여 쟁점해결의 선봉에서 적극 노력하는 등 지휘부가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한 것이 주요했다.

심 민 군수는 "민선7기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만들고 미래발전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중앙 및 전북도, 정치권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절정과 책임을 다해준 관계 공무원과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과 함께 현안해결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친환경 화장품 육성 만전

국립수목원과 업무협약 산림생물자원 이용 활성화

남원시가 국내 최고의 산림생물종 연구기관인 국립수목원과 지난 7일 업무협약을 맺고 산림생물자원을 화장품산업에 활용할 방침이다.

친환경 화장품산업을 중·장기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남원시는 인적·물적자원과 관련 정보의 교류를 통해 산림생물자원의 이용 활성화를 꾀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가치창출을 위해 국립수목원과 협력

하기로 했다. 남원시는 그동안 지리산권 식물자원을 기반으로 한 천연화장품 소재와 원료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에 꾸준히 투자를 해왔다.

이강조 남원시 원예허브과장은 "화장품원료생산시설이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 남원시로서는 앞으로 산림생물자원의 이용 활성화와 가치창출을 위한 공동연구를 비롯해 실무적인 업무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자기혈관 숫자알기 캠페인

순창군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으로 정하고 집중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군민인식개선 및 생활 실천을 위한 행동변화 유도를 위해 추진됐으며, '자기혈관 숫자알기 리더서클 캠페인'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스스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알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는 의미다.

특히 군민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과 재래시장을 찾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규칙적으로 측정하고 수치 바로알기,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배너, 동영상 홍보, 레드씨클송 송출, 홍보물 배부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관심과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군 정영근 보건의료원장은 "장기적 관점의 군민 인식개선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대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순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인구늘리기 머리맞대다

인구절벽 전면적 대응

저출산 초고령 극복

남원시는 지난 7일 저출산·초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지방소멸 위기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인구늘리기 신규시책 발굴 및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결혼·임신·출산·육아, 일·생활 균형 등 출산 장려분야와 일자리창출, 귀농·귀촌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진입 장려 분야의 계속사업을 포함한 75건의 시책이 제시되었다.

▲결혼지원 분야는 미혼남녀 만남의 장, 신혼부부 핑크하우스 제공, 결혼장려금 지급 ▲출산지원 분야는 남원

예촌 산후조리 객실이용, 영구피임 복원수술비지원 ▲육아분야는 초보아빠의 육아교실, 행복한 육아를 위한 엄마·아빠의 자유시간, 아이가 행복한 Good-Day ▲일·생활 균형 분야는 워라벨(Work & Life Balance)을 위한 복무제도 활용,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전입지원 분야는 전입 장려금지급, 남원문화버스투어추진 ▲일자리창출 분야는 근로자 전입장착금지원, 청년 CEO양성 ▲귀농귀촌 분야는 귀농귀촌 재능기부 자율모임체 활성화, 귀농농가 멘토링제 ▲정주여건개선 분야는 빈집활용 임대주택사업, 농산촌 마을만들기 사업 등이다.

남원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고,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조직개

편을 통해 기획실에 인구정책담당을 신설했으며,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행복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저출산 대책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한 결과,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7 저출산 극복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5월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행정안전부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김동규 부시장은 "인구 감소는 지역의 존립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전 공직자가 적극적인 자세로 인구감소 위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야 한다"며, 전 부서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인구감소의 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추경예산안 3925억원 편성

순창군은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기경예산 대비 4.63%, 174억원이 증가한 총 3,925억원으로 편성해 순창군의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추경예산 재원은 201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영여금 78억, 세외수입 42억, 국·도비보조금 46억 등 총 174억

원이다. 추경예산 규모는 기경예산 3,751억원 보다 174억원(4.6%)이 증가한 3,925억원을 편성했다.

농림해양수산 44억, 산업 및 중소기업 41억, 문화 관광분야 20억, 사회복지분야 19억원 등이다.

군 양동엽 기획실장은 "이번 추경예

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필수적인 현안사업 위주로 추경예산을 중점 편성했다"라면서 "군의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한 사업 추진 및 집행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군의회에서 예산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21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은 드림스타트 아이들의 건강·성장에 책임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점프! 점프! 놀이운동'으로 키가 쑥~

순창군 드림스타트 키성장 운동교실 운영

순창군 드림스타트는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점프!! 점프!! 놀이운동' 키성장 운동교실을 운영한다.

키성장 운동교실은 신체 부진 및 인지발달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받지 못한 미취학 아동들에게 신체발달을 높이고 오감놀이와 역할놀이를 통해 아동의 두뇌발달과 사회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미취학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9월부터 10월 실시한다.

군은 키성장 운동교실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할

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아이의 성장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드림스타트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드림스타트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이상으로 국민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가정, 법정 한 부모 가정(조손 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 피해 아동 등에 대한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가타 자세한 사항은 드림스타트 전화(650-5091)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남원시는 지난 8일 사랑의 광장 일원에서 제3회 남원시 사회복지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제15회 남원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함께 '행복한 남원! 복지가 답이다!'라는 슬로건으로, 남원시가 주최하고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해 40여개 시·관·도·단체와 시민 등 3,0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남원시의 사회복지 관련 프로그램과 정보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민·관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이 소개되고, 그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유공자 18명이 표창을 수상했다.

이환주 시장은 축사를 통해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남원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행사에 참여한 모든 분도 이웃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남원시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